

전일동향

전일대비 11.00원 하락한 1,498.50원에 마감

10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506.10원(15:30 기준) 대비 0.60원 상승한 1,506.70원(06:00 기준)에 개장했다. 오전 중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가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하방 경계감이 확대되며, 전일대비 11.00원 하락한 1,498.50원에 증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5.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6.4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06.70	1513.50	1498.50	1498.50	1507.10
	엔화	927.93	935.87	926.25	926.45	-
	유로화	1720.95	1735.22	1709.78	1710.35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87	-3.79	-8.05	-15.32
	결제환율(수입)	-0.55	-2.65	-5.83	-11.6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달러 매도 물량 출회에...1,50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2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01.40, 15:30 기준) 대비 1.95원 하락한 1,498.2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달러 공급 우위로 하락 전망한다. 지난 금요일 정책당국이 다시금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환율 상단에 대한 경계감이 견고해졌다. 여기에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ADR 상장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감과 중공업체의 선물환 매도가 이어지면서 달러 매도 우위의 수급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 변동폭을 키웠던 외국인 순매도가 잦아들면서 그간 환율 상승을 뒷받침했던 역송금 수요의 감소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이 누그러질 소지가 다분, 이에 금일 환율은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동 불확실성과 강달러 기조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90.00 ~ 1505.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227.7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95원 ↓
	■ 美 다우지수 : 52637.01, +149.6p(+0.2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99.6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792 억원